

2019년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9. 1. 4.(금) 09:00~11:00

□ 장 소 : 대학본부 3층 307호

□ 참석위원 : 6명

- 교원위원(3명) : 교학부총장, 학생·취업처장, 기획예산처장
- 학생위원(3명) : 부총학생회장, 사회과학대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 배 석 : 2명 (간사 : 기획예산과장, 서기 : 기획예산과 담당자)

□ 심의안건 : 2019학년도 인천대학교 등록금

□ 심의결과

- 학부 등록금 0.3% 인하, 등록금 세입 대비 장학금 비율 18.1%(0.8%p 증가), 학생복지요구안 예산 4억원 반영
- 대학원 등록금 및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동결

□ 회의내용

▶간사

성원 보고(재적위원 총 7명 중 참석위원 6명, 불참위원 1명)

▶교학부총장

인천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지난 번 1차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었는데 그 때 학생복지요구안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전체 취합을 하고 가능여부와 실제 소요예산에 대해 논의를 했을텐데 서로 간 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을 얘기해서 조정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부총학생회장

인문대학 테라스 흡연 가림막 관련해서 어제는 건물 부지 내로 알았는데 더 알아보니 건물 부지 밖에 요청한다고 해서 이 예산을 별도로 더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

예. 일단 저는 크게 갓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8억 4천만원정도인데 흡구장 야간 라이트 3억 2천만원과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엘리베이터 합쳐서 6억원, 이 두 건을 빼면 2억 4천만원이죠. 일단 이 두 건에 대해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부총학생회장

엘리베이터 건은 일단 올해 계속 논의를 해서 내년도 복지요구안에 반영하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처장

예. 결정하실 때 효용성 및 활용성 등을 고려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도한 시설비로 새로운 시설비 투자 없이 최소 유지보수비만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위한 것들은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중에서 취업경력개발원 학생라운지 7천만원과 도서관 의자교체 4천만원 건은 학생회에서 엘리베이터, 야간라이트 대신 하자고 하면 할 수도 있을것으로 봅니다.

▶부총학생회장

학생복지요구안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다보면 총합이 그리 많지는 않아서 신규사업목록 중 학생복지 관련 된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기에 저희가 학생복지에 필요한 것들은 선별을 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고 싶은 면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장

일단 이 자리는 등록금심의위원회니까 등록금, 장학금, 학생복지요구안을 얼마할지 정한 다음에 복지요구안의 세부내용은 큰 틀에서는 추후에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교학부총장

학생복지안이 8억 4천만원인데 앞에서 얘기한 두 건을 빼면 2억 4천인데 이 두 건을 빼는 대신에 3억이든, 4억이든 전체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 내에서는 학생들이 조정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에 등록금, 장학금, 학생복지요구안 규모를 놓고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학교는 국가장학금2를 확보하기 위해 등록금은 조금 인하하고 장학금은 조금 올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범주 안에서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가장학금을 받는 것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동아리연합회장

저번에 말씀하신 것이 등록금은 0.2% 인하, 장학금 0.5%인상, 복지요구안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가신다고 얘기하셨죠?

▶기획예산처장

예. 그렇습니다.

▶동아리연합회장

작년에 입학금 폐지하면서 그 비율이 1.84%였잖아요 그 전년도에는 1.64%였나요?

▶기획예산처장

2017년 입학금이 14만원 줄었고, 2018년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동아리연합회장

입학금 감소나 폐지가 국가장학금을 지원, 평가하는 데는 반영되었나요?

▶기획예산처장

입학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동아리연합회장

2017년도 국가장학금 받은 비율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 2018년도에 2017년 대비 등

록금 인하 폭이 줄었는데 국가장학금이 줄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처장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타 대학과의 상대적인 것이라 타 대학이 동결이 많다면 우리가 조금만 인하해도 국가장학금 받기에 유리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들 재정상황이 너무 어려워져 대부분 등록금 추세가 동결이나 인상입니다.

▶동아리연합회장

저희가 생각해본 방향은 학교의 미래를 고려했을 때 등록금 인하는 여전히 필요하고 인하폭이 크면 클수록 국가장학금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생복지요구안은 이제 몇 년간 해오면서 양적으로는 많이 채워진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복지요구안을 늘리는 것보다 저희 입장에서는 등록금 인하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 3% 인하를 말씀드렸지만, 그 후에 논의한 결과 1.2% 인하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장학금 인상률은 0.5%인상으로 얘기됐습니다.

▶기획예산처장

그럼 등록금은 1.2% 인하, 장학금은 0.5%인상, 학생복지요구안은 2.5억원인가요?

▶동아리연합회장

그리고 학생복지요구안은 등록금 인하 폭을 줄 인만큼 조금 더 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복지요구안 중 큰 두 건은 빼고 좀 더 보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장

그럼 정리하자면, 등록금은 1.2% 인하, 장학금은 0.5%인상, 학생복지요구안은 3억인 것이네요.

좋은 안이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등록금은 1.2% 인하하였을 경우 대외적으로 우리의 재정상태가 매우 넉넉한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동아리연합회장

교육부나 기획재정부에서 혹시 입학금 관련해서는 잘 안 보나요?

▶기획예산처장

일반적으로 입학금은 학교의 수입원이라기보다는 입학생의 입학하기 전 프로세스를 위한 것으로 등록금과는 별개로 생각합니다.

▶동아리연합회장

그럼 입학금을 1.64%, 1.84% 이런 식으로 인하하는 것에 대해 크게 관심을 두고 그런 것은 아닌가요?

▶기획예산처장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아리연합회장

2017년도 등록금을 1.0% 인하했을 때 교육부나 기획재정부에서도 얘기가 있었나요?

▶기획예산처장

예. 재무경영위원회나 이사회 등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학생들을 위한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데 등록금 인하 폭이 크면 대외적으로 재정지원 요청의 설득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총학생회 안의 등록금 1.2% 인하는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총학생회장

그럼 일단 휴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교학부총장

예 잠시 휴회를 하겠습니다.

▶교학부총장

속회하겠습니다.

학생회도 휴회하는 동안 많은 고민을 했을 텐데요, 조정된 의견을 얘기해주세요.

▶부총학생회장

예. 말씀해주신 부분을 가지고 등록금, 장학금, 학생복지요구안을 조정해서 등록금 인하율을 0.3%로, 장학금 인상률을 0.8%로, 학생복지요구안으로 총 4억원을 요구합니다.

▶기획예산처장

좋습니다. 일단 등록금 인하율 0.3%, 장학금 인상률 0.8%은 그렇게 하도록 하죠.

다만 복지요구안의 세부사항은 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휴회하는 동안 복지요구안 4억원 중 총학생회 행사지원비로 1억원을 얘기하셨었는데, 이 부분은 5천만원까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학생복지요구안의 큰 두 건을 제외하고 2억 4천만원과 총학생회 행사지원비 5천만원을 더해서 이 부분 총 3억원으로 하고요, 나머지 1억원은 후에 추가적으로 협의해서 정하시는 걸로 하죠.

▶부총학생회장

알겠습니다.

▶교학부총장

작년과 비교하면 작년은 등록금 0.2% 인하, 장학금 0.5% 인상을 더해서 0.7%로 3.5억원이고 거기에 복지안 5억원 해서 총 8.5억원이네요. 올해는 등록금 0.3%, 장학금 0.8% 합 1.1%로 5.5억원에 복지안 4억원 더해서 총 9.5억원으로 올해 1억원 정도 더 예산이 지원된 거네요.

▶직원

예. 그리고 저희가 대학원 등록금과 정책대학원의 최고관리자과정도 논의를 해봐야 합니다. 외국인유학생 등록금도 정해야하는데, 참고로 동북아물류대학원은 당초 정할 때부터 2018학년도는 미인상하고 2019학년도부터 인상하는 걸로 정했었습니다.

대학원은 제가 원우회장과 통화를 했는데 대학의 비전이나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당

장 약간의 인상, 인하, 동결은 큰 틀에서 동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대학의 장기적인 계획 등에 대해 얘기해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책대학원의 최고관리자 과정은 담당부서에서 별도의 인상, 인하 이슈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처장

대학원은 동결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최고관리자과정도 그렇고요.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은 비싸긴 한데, 열심히 공부하면 장학금이 대부분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도 동결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부총학생회장

대학원 입학금 및 등록금 관련해서 저도 원우회장님과 통화를 했었습니다. 전달하자면, 등록금을 책정하는 자리에 대학원생 대표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대학원 등록금도 타 국립대학교와 비교했을 때 30%~40%정도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에 맞게 타 국립대학교와 맞도록 인하를 제시하셨었습니다. 학부 등록금이 낮춰지는 수준만큼 대학원 등록금도 낮아지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향후 규정 수정 등으로 대학원생 대표도 참석한다면 의견 수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타 대학을 봤을 때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대학원생 대표가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기획예산처장

대학원은 일반대학원의 경우는 장학금이 많습니다. 등록금을 내는 경우가 많지 않고, 특수대학원의 경우 야간에 다니는 분들 위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원

저도 부총학생회장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 같은 분과 통화를 한 것 같고요, 제가 원우회장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작년에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을 조정하는 안을 심의했지만, 현행 그대로 가자는 대로 결정되어서 만약 이를 변경하기가 어렵다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올해 가졌던 사전협의 자리에 모셔서 의견을 먼저 청취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했습니다.

▶기획예산처장

그럼 내년부터 사전협의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과 대학원 대표도 와서 이야기를 들어 보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교학부총장

그럼 다 된 건가요?

▶간사

예. 작성된 최종 합의서를 검토하시고 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 2019학년도 등록금 최종 합의서 서명 -

▶교학부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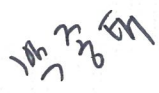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종적으로 2019학년도 학부 등록금은 전년대비 0.3% 인하, 장학금은 0.8%p 인상, 학생복지요구안은 4억원으로, 대학원 등록금(정책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포함)은 동결,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은 동결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2019. 1.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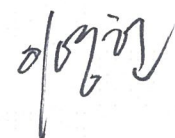
위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위 원 박 종 태 

위 원 최 병 조 

위 원 허 진 

위 원 최 동 혁 

위 원 이 영 현 

위 원 고 경 남 

위 원 허 인 수